

충남기후정보브리핑

3호

ChungNam Climate Information Briefing

2015. 6. 29.

2015년 하계 충남해역 해파리 피해 대비

윤종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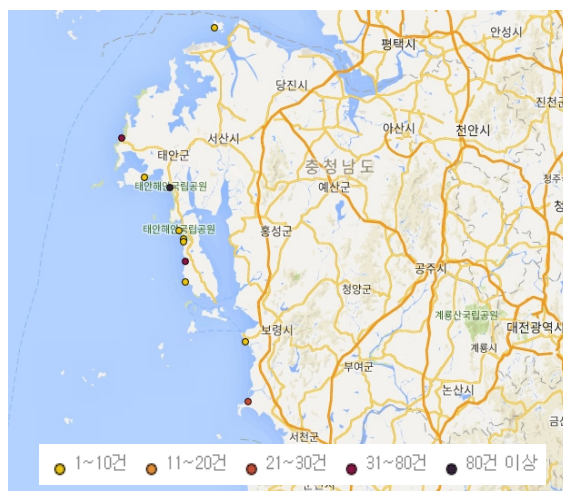
충남연구원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책임연구원, jjyoon@cni.re.kr

- ◇ 국립수산물과학원의 보도자료(2015.6.3.)에 의하면 노무라입깃해파리 및 보름달물해파리의 출현빈도는 작년에 비해 다소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
- ◇ 주요 해역에 대한 해파리 감시체계를 강화해 수산피해를 최소화하고, 해수욕장 등지에서의 독성해파리에 의한 피해 대책 수립이 필요

□ 해파리 피해 현황

- 1990년대 후반부터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한반도 수온이 상승하면서 따뜻한 물을 좋아하는 해파리가 한반도 연안에 증가하고 있음.
- 최근에는 독성해파리(커튼원양해파리, 노무라입깃해파리, 입방해파리, 보름달물해파리 등)의 출몰에 따라 해수욕객이 쏠리는 피해가 증가함.

▶ 주요 독성 해파리 및 道내 해수욕장 해파리 쏠임 환자 현황(건수)



해수욕장	환자 건수
꽃지	42
대천	2
두여	6
만리포	72
몽산포	106
삼봉	8
샛별	2
안면	3
연포	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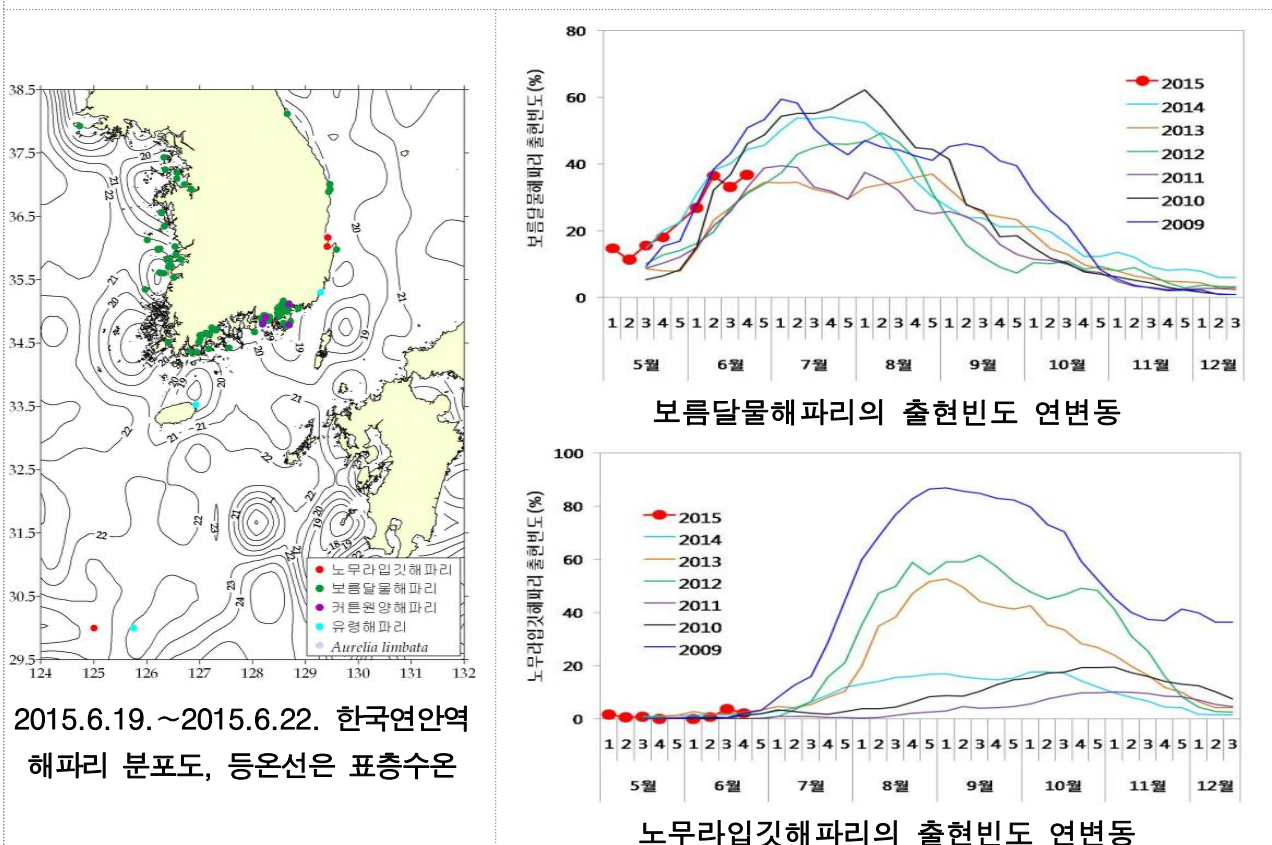
출처 : 해양경찰청 2013.6.1~8.12

- 어획량 감소 및 어구 망실 등으로 인한 어업피해를 유발함.
- 충남해역에서는 주로 노무라입깃해파리(맹독성)와 보름달물해파리(약독성)에 의한 피해가 많음. 해마다 태안 만리포, 몽산포, 꽃지, 보령 대천 등 주요 해수욕장에서 200여건 이상의 해파리 쏘임 피해발생 보고.
- 2012년 8월 인천 을왕리해수욕장에서 해파리쏘임에 의한 8세 여아 사망 사건 발생.

□ 2015년 해파리 발생 예상

- 해파리 발생 경보가 예년에 비해 빨라짐. 경남 고성외 보름달물해파리의 출현이 예년보다 최대 2달가량 빠르며, 노무라입깃해파리도 전년 동일시기 대비 2배 가량 증가하여 6월말 경부터는 우리나라 연안에 본격적인 유입이 예상됨.
- 해파리가 빠르게 퍼지고 있는 것은 연근해 수온이 5월 약 9℃, 6월은 약 20℃ 정도로 예년에 비해 크게 높아 해파리 증식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.

▶ 해파리 분포도 및 월별 해파리 출현빈도



- 7~8월에는 수온이 높아짐에 따라 道내 보령시, 당진시 연안 및 태안반도/삼시도 등지에 보름달물해파리 등의 독성해파리 밀집 출현에 따른 피해발생이 예상됨.

□ 피해대책 방안

- 해파리 밀집 발생 해역을 대상으로 유입로를 차단하고, 그물망 등을 이용하여 해파리 유성체를 제거.
- 해파리 폴립(알집) 대량서식지(충남 당진 현대제철, 새만금 내측 방조제 등)에서의 폴립제거작업 실시하여 서해안 피해 최소화.
- 道내 주요 해수욕장에 해파리 차단막 등의 도입을 검토.
- 해양수산부의 해파리 정보시스템을 활용하고, 해파리 피해발생을 면밀히 파악해 해수욕장 통제 등의 사전피해 예방책을 강구.
- 해수욕장 구급요원에게 맹독성 해파리 쏘임 피해에 대한 응급대처 방안 교육 및 해수욕객에 대한 해파리 피해대처법 안내.
 - 해파리에 쏘인 즉시 환자를 물 밖으로 나오게 할 것
 - 상처부위는 바닷물로 씻어낼 것(수돗물, 알코올, 식초 등 사용금지)
 - 해파리의 사체나 조각 등에도 독성이 남아 있으므로 손대지 말 것
 - 족수제거시는 플라스틱카드를 이용하여 긁어낼 것
 - 발열, 근육마비, 전신 알레르기반응 시 즉시 이송 (호흡곤란 및 신경마비 대비)
- 해파리 쏘임 피해는 몸이 약한 어린이나 노약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해파리주의보 발령시 특히 주의를 요함.
- 해수욕장이 폐장되는 9월 이후에도 더위가 계속됨과 함께 높은 수온이 유지됨으로써 해파리가 계속 출현할 것으로 예상됨. 따라서 해수욕장 구급팀이 없는 상황에서의 해수욕객 해파리 쏘임 사고 대처에 특히 주의가 요구됨.